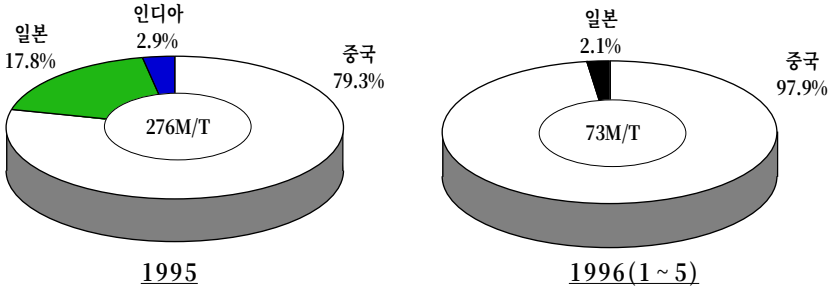
J-Acid, 중국산 수입의존 심화

1~5월 총수입의 98% 차지 … 95년동기 대비 19%P 상승

나프탈렌을 주원료로 생산되는 J-Acid의 중국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관련업계에 따르면, 96년 1~5월 J-Acid 수입량은 73톤으로 중국산이 71.5톤 수입돼 98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J-Acid 수입점유현황



95년동기 중국산 수입비중이 79%인 점을 감안하면 96년동기 대비 19%P 대폭 상승한 것이다.
95년 한해동안 중국산 수입량은 219톤으로 총수입량 276톤 중 79.3%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는 94년 73.2%보다 6.1%P 신장된 것이다. 또 94년 수입량 175톤보다 44톤이 많은 양이다.
이처럼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가격이 Kg당 6~7달러 정도로 기존 공급선인 Bayer, ICI, Acna제품 가격에 비해 Kg당 4~5달러 정도 저가인 동시에 품질면에서도 많이 향상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이와함께, 나프탈렌 가격의 폭등세, 이태리 Acna의 J-Acid 생산 중단, 인디아의 ß-Naphthol 생산 중단 등도 J-Acid의 중국 의존도 심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J-Acid 시장은 H-Acid와 마찬가지로 나프탈렌 가격이 95년초 FOB기준 900달러에 달해 94년 400달러보다 125% 상승했고 여기에 중국의 저가공략으로 가격이 하락, 이중고를 겪어 왔다.
그러나 95년10월 이후 나프탈렌 가격이 450달러대로 안정세를 보임과 동시에 주수요처인 반응성 블랙염료 시장이 그동안의 생산감소세에서 반전, 94년동기 대비 7.1% 증가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특히, 반응성염료의 고부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인 반응성 염료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J-Acid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.
다만 중국산 수입 증가추세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내 J-Acid 시장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중국의존도 심화에 따른 수입 Risk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.
한편, 그동안 가격 급등으로 국내공급을 자제해 왔던 Bayer, ICI 등 다국적기업들이 고급그레이드 시장을 겨냥해 재탈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6/10/7>